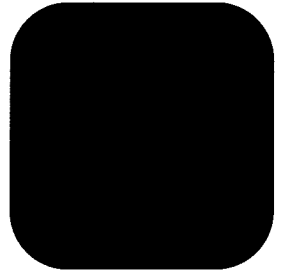


# 성가복지병원 김도진 뇌내출혈, 당뇨

곽 아니빔 수녀 성가복지병원 5층



2007년 8월 19일 경비 일을 하시다가 쓰러져 일산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 받고 개두술, 뇌내혈종제거술 받은 후 본원에서 2007년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원하여 계시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가족의 요청으로 일산가족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가셨다. 그곳에서 수차례 패혈증 쇼크가 있어 2008년 3월경 식사를 못하게 되어 비위관을 삽입하여 경관식을 하게 되셨다.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자 2008년 5월 27일 본원에 재입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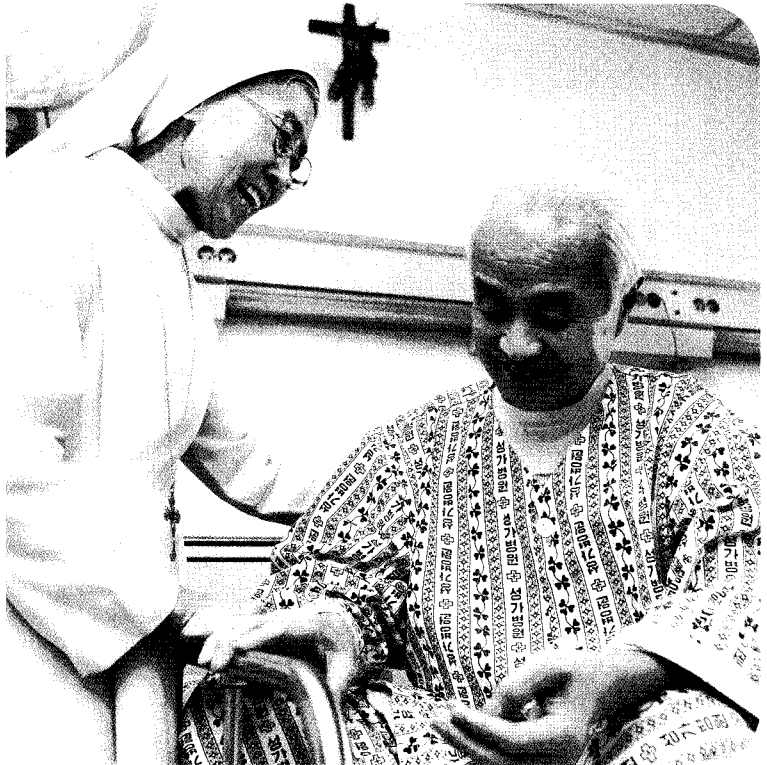
비위관과 기관 절개로 튜브를 하고 계셨으며 소변줄도 하고 계셨고 의식은 있었으나 말씀은 하지 못하시고 고개짓으로만 표현하실 정도였다. 욕창이 양쪽 발꿈치에 있었고 엉치뼈 부분에도 욕창이 진행 중이었다. 오시자마자 혈당이 떨어졌고 전해질이 불균형이어서 수액 등을 치료받으셨다.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지내시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설사와 구토, 고열이 있으셨다. 그 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통증에만 반응하셨다. 패혈증 쇼크 증상이었다. 소변량도 줄어 항생제 및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며 위독한 상황을 잘 넘기셨다. 부인과 자녀(딸 3명)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 방문을 하셨다.

7월 21일부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인슐린 주사를 맞았으나 고열은 계속되었다. 27, 28일은 고열이 지속적으로 나는 가운데 교환 주위가 붓고 빨개지면서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오른쪽 서혜부까지 부종이 심해져 방문 오신 비뇨기과 선생님과 협진하에 타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하셨다. 29일 교환 부위가 점점 괴사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부종이 심하고 소변 부패된 냄새 심해져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성바오로병원 응급실로 가시어 교환 부위의 이상 피부를 제거하고 방광루까지 하게 되셨다.

수술 후 곧바로 본 병원으로 모시어 본원에서 매일 상처 치료와 꾸준한 식사로 점점 호전되어 10월 7일 교환 부위에 남은 피부를 당겨서 봉합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 성바오로병원에서 2일 입원하고 오셨다. 그 후 아직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셨다. 표현이라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 정도였지만 입으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서 경관 cereal도 입으로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다. 점차적으로 식사를 미음, 죽, 밥의 순서로 드시게 되셨다.

기관 튜브를 제거하던 날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숨을 쉬시는 모습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도움보다 김도진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드렸다.



기관삽관 튜브를 제거하기 위해 튜브를 막고 호흡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시다 자가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 11월 8일, 이비인후과 협진 아래 기관튜브를 제거하셨다. 성바로병원에서 비뇨기과 수술을 받으신 후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해지고 식사, 운동도 먼저 적극적으로 챙기셨다.

기관 튜브를 제거하던 날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숨을 쉬시는 모습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도움보다 김도진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드렸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방문하시어 온몸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주고 가시던 부인과 아이들의 지극 정성으로 김도진님의 의지 또한 강해지셨으리라 믿는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누워서 팔, 다리만 올렸다 내렸다를 시작으로 이젠 혼자서 휠체어도 타시고 봉을 잡고 걷기도 하신다. 이젠 요구들이 많아 지셨지만 우린 귀찮지 않다. 오히려 늘어나는 요구들이 더 힘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기관절개 했던 자리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

만 손으로 막고 말씀 하시면 발음도 표현 전달도 정확하시다. 며칠 전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고 완전히 봉합하기로 했다. 아직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식사 조절과 열심히한 운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료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운동을 하시다 510호 앞에 서서 이젠 두 번 다시 저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각오를 하신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부인도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를 넘기면서 학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김도진님도 돌봐드리느라 많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김도진님의 의지를 아시기에,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살려야 하기에 신앙인은 아니지만 하느님께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그 감사의 보답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작은 감사의 삶의 시작으로 교리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요구가 많아진 남편이지만 밋지가 않다고, 살아서 고맙기만 하다고, 그래서 원하는 것 다 해드리고 싶다며 큰 웃음을 지으셨다.